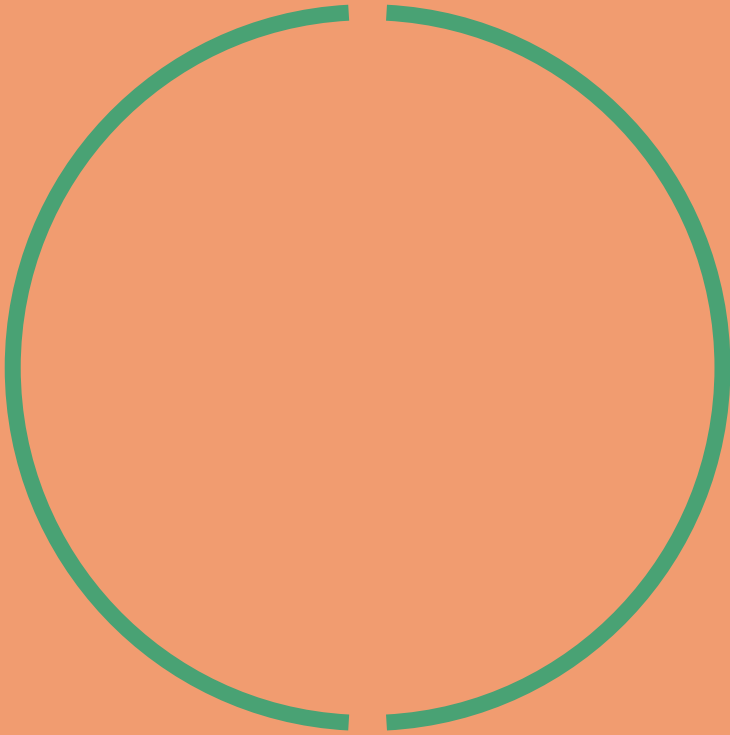


vol.144



2022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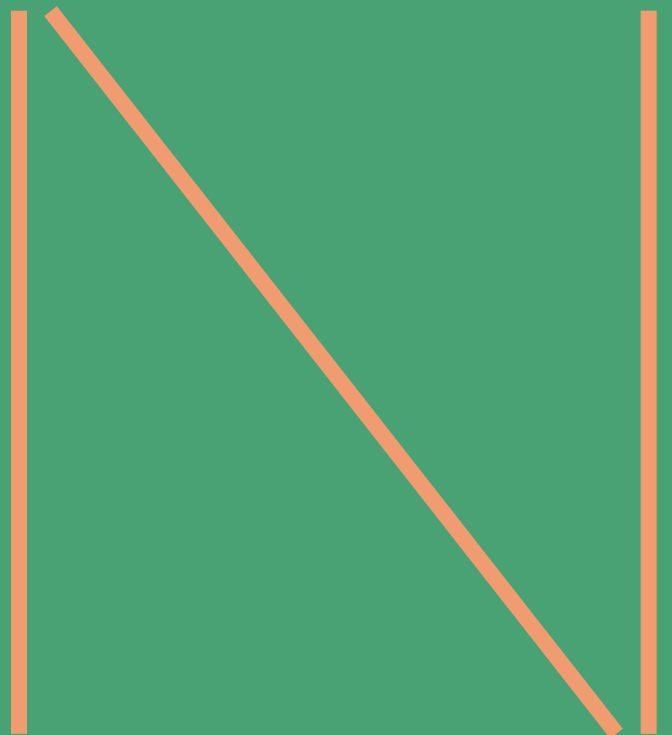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진
코로나 팬데믹.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강력한 바람과는 다르게
감염병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껏 움츠러드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인하대병원에는 3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일찍부터 코로나19 검사와 환자 치료에
앞장서 왔습니다. 응급실 내 격리병상 5병상
이외에 4개의 격리병상을 추가 확보하며
중증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격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비대면 진료체계로 위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입원 의학과
교수이자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인
김정수·이만중·김아진·박미화 교수를
포함한 40여 명의 인하대병원 의료인력은
코로나19 의심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비대면 진료체계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다

글 편집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비대면 진료체계는 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까지
갖춘 시청각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치료를 위해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의료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확한 처치를 내릴 수 있지요. 약물 투여량,
활력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이 없기에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하대병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며 코로나 감염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CONTENTS



02

02

병원 풍경

비대면 진료체계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다

인하대병원보 2022년 봄호(등권 제144호)

발행일 2022년 3월 1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SPECIAL
THEME

무조건,
캠핑

08

SPECIAL THEME 01

승고하고 재미있는 취미, 캠핑

10

SPECIAL THEME 02

캠핑, 지금 가장 매력적인 휴식

14



14

SPECIAL THEME 03

캠핑이든 즐거운 모두의 캠프장

18

SPECIAL THEME 04

완벽한 캠핑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

사람과 건강

22

건강 읽기

뇌경색과 뇌출혈의 전조증상

24

인하포커스

영상의학과

30

영화와 인생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와

<사운드 오브 뮤직>

34

계절밥상

당신을 위한 봄날의 밥상

38

서울 여행

서울공예박물관

38



24

인하, 사람

42

인하가 만난 사람

박원 진료부원장 / 최광성 의생명연구원장

46

행복한 의사

혈관외과 강지희 교수 & 유방외과 박신영 교수

50

친절한 인하인

친절한 인하인을 소개합니다

52

인하미디어

유튜브 채널 & 언론 속 인하대병원

54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56

진료안내표

SPECIAL THEME



무조건, 캠핑

감염병 여파로 해외로 떠나는 일이 녹록지 않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내를 여행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캠핑은 여행의 트렌드이자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하면서 사람이 많지 않은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도 자유롭게 시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캠핑 인구는 약 700만 명에 달하고,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은 2020년 캠핑 시장의 규모가 4조 원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캠핑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자연’은 캠핑의 매력 중 첫손에 꼽을 만큼 강력합니다. 캠핑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일깨워줍니다. 몸의 고단함과 수고로움을 견디고 나면 자연과 교감하는 넉넉한 시간이 기다립니다.

휴식도 캠핑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텐트를 치고 음식을 마련하는 번거로움도 잠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반추하거나, 숲을 거닐다 보면 어느 순간 잊었던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연의 넉넉한 품에 안겨 쉼을 누리고, 자연과 교감하고, 그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는 캠핑. 이보다 좋은 여행이 있을까요? 2022년 봄호 <ON>에서는 ‘캠핑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캠핑이 주는 매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짐을 꾸려 떠나면 됩니다. 새봄에는 무조건 떠나볼까요?



숭고하고 재미있는 취미

캠핑

글 류진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보라.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것을 삶에서 빼앗겼는지, 쓸모없는 슬픔과 어리석은 기쁨 탐욕스러운 욕망, 사회의 유혹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진했는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신의 계절이 오기도 전에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세네카의 대화』라는 책에 있는 메시지이지만 나는 제니 오델의 책에서 봤다. 오델은 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쓴 미국의 예술가이자 칼럼니스트다. 그녀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것이 휴대전화 밖의 우연과 방해, 뜻밖

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계론적 세계관이 없애려 하는 비작동 시간(off-time)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걸 이미 ‘알고 있다’라고 단언한다.

이 이야기는 책의 맨 앞 장, 프롤로그에 등장한다. 읽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했다. 나는 ‘오프-타임’을 가져본 것이 언제였나? 최근 몇

류진 작가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더트래블러」, 패션 매거진 「코스모폴리탄」 등에서 일하며 42개국 200여 개 도시를 여행했다. 유행의 흐름을 붙잡아 소개하는 일을 하다가 지치면 야생의 대자연으로 도망친다.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사는 삶을 글로 쓴다.



년 동안 휴대전화 바깥의 세계에서 존재한 적이 있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처럼 1년에 두 달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질 정도의 환경도, 여력도 없는 생계형 노동자지만 다행히 몇 가지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 대개 자연에 머물 때 그랬다. 바깥에 근사한 숲이나 바다가 펼쳐지는 리조트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곳에선 오히려 나중에 들여다볼, 혹은 SNS에 올릴 인증 사진을 찍고 돈 쓴 만큼(풍경이 좋은 숙소는 대부분 비싸다) 본전 뽑느라 휴대전화를 좀처럼 손에서 놓지 못한다.

내가 말한 ‘자연에 머무는 시간’은 주로 캠핑을 뜻한다. 캠핑의 사전적 정의,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따위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함. 또는 그런 생활’에 충실한 행위 또는 여가를 즐길 때 나는 ‘지금’에 존재한다. ‘지금’에 존재하는 것은 주로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지인데 솔직히 일상에선

손 흔드는 나뭇가지를 따라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닿을 수 있는 조금은 낮 간지러운 질문들도 슬그머니 떠오른다. 나, 잘 살고 있나? 요즘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같은 물음표들. ‘뜯구름 잡지 말라’는 핀잔만 돌아왔던 이 질문은 사실 ‘이번 연말 연봉 협상을 어떻게 성공시키지?’ ‘비트코인 시작하기엔 진짜 늦은 걸까?’ 따위보다 훨씬, 훨씬 중요하다. 철학자들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숲으로 은신한 이유를 ‘인생을 내 의도대로 살고 싶어서, 인생의 본질에 직면하고 싶어서, 그것이 가르치는 바를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제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많은 ‘깨달은 자’들이 인생에서 이런 질문과 맞닥뜨리는 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가지라고 전한다.

한 번도 그 경지에 닿지 못했다. 요가를 진지하게 한지 5~6년이 지났지만, 숫자를 일부터 열까지 잡념(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 냈었나? 내일 아침에 뭐 먹지? 따위의) 없이 세는데 성공한 적이 없는 게 사실이다.

캠핑하는 동안에는 애쓰지 않아도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해로운 일에서 해방된다. 휴대전화에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인류사의 축복이자 저주가 된’ 손전화기를 절로 멀리 둘 수 있다. 매번 해도 번번이 순서를 헷갈리는 텐트를 치고, 한 편에 불을 피우고, 해먹에서 늦은 낮잠 한숨으로 바닥난 체력을 채우고, 해 질 무렵 불붙은 야자 숲 위에 참나무 장작을 얹어 고기를 굽고, 먹은 그릇을 씻어 간이 부엌에 얹어 놓으면 어느새 ‘옆 텐트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정숙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고개를 힘껏 젖히기 좋은 캠핑의 자에 앉아 안면 있는 별자리를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낮에 펼쳐 놓은 침낭 안에 주섬주섬 들어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 잠에 드는 하루. 생명 유지 장치 같았던 휴대전화 없어도 하루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생존을 위한 단순 행위를 잇는 사이 사이에 ‘저 나무 이름은 뭐지?’ ‘이 절기에는 해가 이쯤 뜨고 지는구나’ 같은, 평소엔 잘 하지 않는 생각들을 한다. 석양 무렵의 운슬, 산들바람에



캠핑 이야기에 자주 죽음을 갖다 붙여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런 때다. 남의 SNS를 들여다보며 시샘하다가 혹은 유튜브에서 개, 고양이 영상을 들여다보다가 어느새 삶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음을 깨닫는 순간을 만나기가 쉬운 때. 그런 재앙을 피하려면 자연 속에 별장 짓고 살 여유, 혹은 자주 야생의 지구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여행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당장, 쉽게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건 캠핑이다. 잘못된 의식의 경로를 바꿔 나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행위. 내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송고하며 재미까지 있는 취미를 독자들도 (자주, 더 자주) 즐겨보길 간곡히 권한다. 기왕이면 자랑하기엔 조금 남루한(SNS에 딱히 올리고 싶지 않은) 저렴한 평범한 장비들과 함께.

캠핑, 지금 가장 매력적인 휴식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캠핑’ 열풍. 요즘 가장 핫한 여행의 형태 아닐까.
‘캠핑’이라는 말에 벌써 들썩인다면, 당신도 이미 캠퍼나 다름없다.
이제 나에게 맞는 캠핑을 정해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떠나면 된다.
캠핑의 매력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미지 참고 도서 『대한민국 오토캠핑장 602』(꿈의지도)



조금 부족했지만
오히려 풍요로웠다

대부분 어릴 적에 경험한 야영의 추억이 있을 것이다. 여름 휴가철이면 부모님을 따라나서 바다와 계곡 인근에 텐트를 치고 물장난하며 놀았던 기억 말이다. 친구들과 바닷가로 떠난 캠핑의 기억도 있다. 가족의 사랑과 청춘의 낭만이 추억의 사진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만 해도 뚜렷한 캠핑 장비는 없고 텐트와 집에서 챙겨온 식기구가 전부였다.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기억이 우리를 캠핑의 세계로 다시 이끄는 걸 수도 있겠다. 유년 시절 경험했던 야영이라면 언제라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즘 대세가 된 캠핑은 더욱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쉽게 말해 캠핑은 익숙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 텐트라는 작은 집을 짓고 야외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공간을 잠시 도시에서 자연 속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일단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고, 일상을 벗어나 ‘캠핑’이라는 일탈을 즐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캠린이’라도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캠핑을 한다

캠핑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일깨워준다. 텐트 안에서 듣는 새소리, 벌레 소리, 바람 소리, 계곡물 소리 등 자연의 소리는 그간 잊고 살아왔던 자연의 위대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다. 빗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중 캠핑, 소복이 눈 쌓인 하얀 세상과 만나는 설중 캠핑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고, 캠핑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황홀한 시간이다.

또 캠프장에서는 누구나 요리사가 된다. 캠핑의 즐거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요리 아닐까. 요리의 콘셉트는 캠프장마다 다르다면 좋다. 싱싱한 식재료와 캠프장이 있는 지역만의 별미로 식탁을 차려보자. 캠핑이 한결 풍요로워질 것이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휴식도 캠핑의 매력이다. TV 브라운관이나 스마트폰 화면 대신 유유자적 숲길을 걸거나 사색에 잠기는 사이 우리는 온전한 자아와 마주하게 된다. 불멍, 물멍, 숲멍 등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바다와 강, 계곡, 산과 숲으로 떠난 캠핑에서 가능하다.

평소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가족, 친구, 연인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도 캠핑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는 캠핑을 통해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서로를 챙기는 시간을 갖게 된다.



2022 봄호 <ON>에서는
캠핑 10년 차 유튜버 채혜원
(원더워니_wonderwoni)과
강영민 간호사(내과계 중환자실)
& 박주은 간호사(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병동)가 만나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안전사고에 유의해요!

캠핑은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뱀에 물리거나 물에 빠지거나 모닥불 등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방법을 미리 숙지해두어야 한다. 여름철이라면 특히 안전사고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여름철에는 정해진 캠핑 장소가 안전하다.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는 강가와 개울가는 되도록 피한다.

캠핑, 골라 가는 재미가 있다

캠핑은 방법과 콘셉트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오토캠핑, 차박, 카라반, 모터캠핑, 노지캠핑, 백패킹 등 다양한 종류 중 자신에게 맞는 캠핑을 선택하자.

오토캠핑 자동차를 뜻하는 오토(Auto)와 야영을 뜻하는 캠핑(Camping)이 더해진 합성어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 가운데 하는 야영을 뜻한다. 주로 캠핑카를 이용해 오토캠핑을 즐긴다.

글램핑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더한 말이다.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스러운 야영을 뜻한다. 페르시아 카펫과 앤티크 가구,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등 웬만한 호텔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차박캠핑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최근 유행하는 캠핑의 유형이다. 차박은 자동차와 숙박의 합성어로, 차량만 있으면 이동과 숙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간단히 매트만 깔고 자는 단순한 차박부터 호화로운 캠핑카를 동원한 차박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백패킹 조금은 불편한 캠핑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백팩을 이용하는 캠핑으로 가방에 텐트, 음식, 식기, 기타 장비 등 최소한의 짐을 꾸려 떠나는 것이다. 튼튼한 체력이 필요하다. 비바크(Bivouac)는 텐트 없이 침낭으로만 밤을 보내는 것이다. 하늘을 지붕 삼아 자는 것으로, 백패킹보다 조금 더 고단하다.

모터캠핑 모터사이클과 캠핑을 더한 캠핑이다. 쉽게 말해 ‘바이크를 타고 이동해 즐기는 백패킹’이다. 바이크가 있다면 백패킹 장비를 장만하면 되고, 백패킹을 즐기고 있다면 바이크를 장만하면 된다.



캠핑 이상의 그 무엇을 즐기자

‘자연에서 즐기기’라는 캠핑의 주목적을 달성했다면 이제 보너스를 얻을 차례다. 캠핑은 캠핑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허락한다. 자신만의 테마를 정하는 것이다.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낚시와 등산 등 야외 활동과 결합하면 된다. 특히 낚시는 캠핑과 잘 어울리는 놀이다. 흐르는 계류에 몸을 담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입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카누도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강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풍경은 또 다르다. 캠핑과 어울리는 야외 활동 등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 캠핑의 추억은 더욱 진하게 남을 것이다.



캠핑이도 즐거운 모두의 캠프장



봄이 왔다. 마음이 춤을 춘다. 캠핑은 하고 싶은데,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캠프장 중 어디를 가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다음을 참고하자. 숲, 강, 바다 등 각각 다른 풍경이지만 자연의 품에 안겨 쉬을 누리는 건 같다. 기호와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캠프장 6곳을 소개한다.

글 김민정 사진 스튜디오100 DB, 한국관광공사 <가볼 만한 곳>



01 낭만이 흐르는 숲속에 시크릿가든 캠프지라운드

가평과 춘천의 경계에 있는 더 시크릿가든 캠프지라운드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미덕을 발휘해 조성한 감성 글램핑장이다.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킨포크’ 스타일로 꾸민 공간은 여유로운 미국 전원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소소하지만 자연스러운 멋이 살아 있는 미국 포틀랜드 교외의 모습과 유럽 분위기를 더한 느낌이다. 1만1,570㎡(3,500평) 공간에 포틀랜드 스타일의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주변에 글램핑 스폿이 자리하며, 가운데 공간은 넓은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다. 텐트는 총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동 사용한다. 캠프지라운드에서는 예약한 이들에게는 BBQ 세트를 제공한다. 목살, 삼겹살 등 육류와 새우, 모듬 쌈채, 김치, 피클 등이 구색을 갖춰 나온다. 매점에서는 간단한 음료와 소금, 간장 같은 필수 양념, 장작 세트 등을 판매한다.

문의 | 031-591-9742

위치 |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430-2

02 포천 멥우리협곡캠핑장과 비둘기낭캠핑장

경기 포천의 멥우리협곡캠핑장은 다양한 편의시설보다 호젓한 분위기가 매력 있는 곳이다. 차 한 대, 텐트 한 채가 적당히 들어가는 캠핑 구역이 산자락 숲 곳곳에 숨은 듯 자리 잡았다. 키 큰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에 텐트를 치면 이름 모를 산속에서 홀로 캠핑하는 기분이다.

인근 비둘기낭캠핑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약 5만㎡ 대지에 바둑판처럼 구획된 캠핑 구역이 펼쳐지고, 공동 취사장과 화장실, 온수가 나오는 깔끔한 샤워실까지 편의시설도 부족함이 없다.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이용료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멥우리협곡캠핑장

문의 | 010-2730-9935

위치 | 경기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길 400

비둘기낭캠핑장

문의 | 031-540-6501

위치 | 경기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451



03



바다와 숲의 품은 힐링 쉼터

고래불국민야영장

바다를 빼놓을 수 없다. 영덕에 있는 고래불국민야영장은 해변과 숲의 품을 품은 힐링 쉼터다. 고래불해수욕장 덕천지구 앞 숲속에 4, 6인용 캐러밴 25동, 숲속야영장 110면, 오토캠핑장 13면을 갖췄다.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고, 취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청결하다. 텐트와 장비 없이 캠핑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캐러밴 중에는 동물 모양 캐러밴이 특히 인기가 높다.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숲속야영장은 바닷바람과 나무 그늘 덕에 시원하고 쾌적하게 캠핑할 수 있다. 오토캠핑장은 캠핑카와 트레일러를 위한 공간이다. 주 관리동 2층에는 대가족이나 단체 여행에 적합한 펜션형 숙소도 4개실이 있다.

문의 | 054-734-6220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소양호 품은 뷰 맛집

러빙네이처

강원 인제군 남면에 있는 러빙네이처 캠핑장은 뷰 맛집으로 통한다. 38선휴게소 옆에 자그맣게 자리 잡고 있어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이곳에서는 물멍, 산멍, 불멍이 모두 가능하다. 사이트 바로 앞으로는 소양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에는 부드러운 능선을 자랑하는 산이 굽어본다. 사이트는 1층(러빙존)과 2층(루프톱), 카라반 & 차박 구역으로 나뉘는데,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청정한 소양호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명당자리를 예약하고 싶다면 A~F 사이트 중 하나를 선점해야 한다. 그 외 자리는 앞의 텐트가 소양강 뷰를 가린다고 하니 새겨두자.

문의 | 010-6352-6868

위치 | 강원 인제군 남면 설악로 1129

(38선휴게소식당)

04





05

홍천강을 바라보는 캠핑 명소 모곡밤벌유원지

강원 홍천에 있는 모곡밤벌유원지는 캠핑과 함께 물놀이, 낚시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수심이 어른 종아리 정도로 얕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 좋다. 아름답고 밤나무와 미루나무 숲은 태양을 피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강 따라 조성된 캠핑장 중 마음에 드는 자리에 텐트를 치고 장비를 설치하면 된다. 지면은 은모래와 밤톨만 한 자갈로 돼 있고, 텐트는 300여 동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캠핑장 앞에 흐르는 홍천강이다. 메기, 피라미, 쉬리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해 투망이나 건지 같은 간단한 낚시도구로도 물고기를 잡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새벽녘 강에 피어오르는 물 안개가 자아내는 풍경을 보면 한 폭의 산수화가 따로 없다. 이른 아침 텐트에서 나와 모닥불을 피우고 커피 한잔 마시며 바라보는 홍천강의 모습은 캠핑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게 해준다.

문의 | 033-430-2492

위치 | 강원 홍천군 서면 밤벌길 133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 놀이터 블랙트리

인천에도 캠핑장이 많다. 대부도를 거쳐 선재도를 지나면 서해의 작은 섬, 영흥도에 닿는다. 섬이지만 영흥대교를 건너 육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영흥도에는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글램핑장, ‘블랙트리’가 있다. 서양화를 전공한 주인의 손길이 구석구석 스며있어 방문객을 기분 좋게 만든다. 이곳에서는 프라이빗한 글램핑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총 13개의 텐트를 설치해줬는데, 밀리터리 카키색 사파리 글램핑과 화이트톤 카바나 글램핑으로 나뉘며, 침대, 침구류, 에어컨, 냉장고, 소파, 식탁 등을 갖췄다. 커다란 이케아 가방에는 수저와 포크, 칼, 가위, 도마, 코펠 등 주방용품이 차곡차곡 담겨 있다. 먹을거리는 보통 준비해 가야 하지만 사전에 주문하면 마련해 주기도 한다. 가뿐하게 다녀오려면 블랙트리로 향하자.

문의 | 010-6775-3050

위치 |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757번길 234-13

06



캠핑장에서도 건강한 거리두기는 필수! 코로나19 예방 안전 수칙 - 한국관광공사 고캠프

- ☑ 텐트 칸 최소 2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타인의 텐트와 연결 금지)
- ☑ 관리사무소,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 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 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 자주 환기하기



완벽한 캠핑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

캠핑은 준비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텐트부터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마련해야 하는 장비가 많다.
욕심을 내면 끝도 없지만,
그중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장비를 알아보자.

글 유미지
참고 도서 『대한민국 오토캠핑장 602』
(꿈의지도)

장비 욕심은 금물

가벼운 조깅을 시작하려고 해도 러닝화, 운동복 등 준비물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집을 짓고 먹고 자는 캠핑은 말해 무엇할까. 무궁무진한 캠핑 장비의 세계 앞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고, 결정 장애를 겪는다. 게다가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 캠린이든, 전문 캠퍼든 누구나 캠핑 장비에 욕심을 부리게 마련이다. 우리의 소유욕은 더 좋고, 편리한 장비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 필요 없는 장비까지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보다 마음가짐과 장비를 부릴 수 있는 능력임을 명심하자. 좋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많은 종류의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 더욱이 초보 캠퍼라면 처음부터 지나친 욕심은 삼가자.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어도 캠핑을 즐기는데 무리 없다. 기본 장비는 텐트, 매트, 침낭, 의자와 테이블, 코펠과 버너, 랜턴 등이다. 이때 무조건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유튜브에서 <원더워니(wonderwoni)> 채널을 운영하는 채혜원 씨는 “초보 캠퍼는 한두 번 캠핑을 해본 후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텐트는 인원수, 계절, 주 이용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라”라고 조언한다.



자연 속 작은 집, 텐트

텐트는 잠을 자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도 해야 한다. 자연 속에 지은 작은 집인 셈이다. 캠핑을 함께 할 인원수를 고려해 선택하자. 솔로 텐트부터 대형텐트까지 다양하다.



아늑한 실내용 매트

매트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냉기를 차단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발포 매트,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는 에어 매트 등이 있다.



포근한 잠자리, 침낭

직사각형 모양 침낭, 인체 모양과 유사한 머미 침낭 등이 있고, 봄·여름·가을에 사용하는 삼계절용 침낭과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용으로 나뉜다.



뭐든지 가능한 테이블

캠핑이라도 가구는 필요한 법. 테이블은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준비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색의 장소, 의자

일명 '불멍' '물멍' '풀멍' 등의 시간을 보내는 데 꼭 필요한 조력자다. 식사 때도 필요하다.



많을수록 좋은 코펠

밥을 짓고 먹는 데 꼭 필요한 용품. 혼자 하는 캠핑이 아니라면 7~8인용 이상을 사는 것이 좋다.



조리계의 1등 도우미, 버너

요리를 하려면 '불'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 화력이 좋은 버너를 구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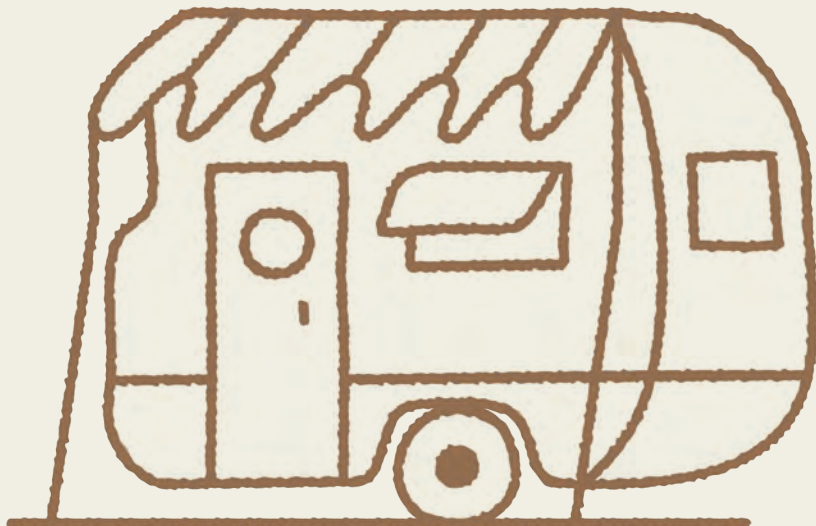
어둠을 비추는 랜턴

자연의 밤은 도시의 밤과 완전히 다르다. 까만 밤을 밝히는 데 랜턴은 필수.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짐 꾸려 넣기

숙달된 전문 캠퍼라면 모르지만 초보 캠퍼는 캠핑을 떠나기 전 짐을 꾸리면서부터 허둥대기 마련이다. 미처 챙기지 못한 장비 때문에 정작 캠프장에 도착해서 당황하는 일도 많다. 에피소드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남는다면 그 역시 캠핑이 주는 선물이지만, 가능하면 무사히 캠핑을 마치는 게 좋다. 그러므로 떠나기 전, 장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꼼꼼하게 준비하자. 자동차에 장비를 실을 때에도 유의한다. 뒷자리가 확보된다면 다소 숨통이 트이지만 뒷자리에 사람이 앉아야 한다면 결국 짐을 실을 장소는 트렁크뿐인 셈이다. 따라서 기능이 중복되는 장비는 과감하게 버리고 최대한 필요한 장비만 가져가야 한다. 승용차라면 매트를 바닥에 깔고, 크고 무거운 장비는 되도록 트렁크 안쪽이나 바닥에 둔다. 맨 위에는 부피가 크면서 가벼운 장비를 올리는 것이 좋다.



PEOPLE & HEALTH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몸과 마음이 안녕한 상태’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소유하고 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것.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면 좋겠습니다.

바른 생활 습관 ①

꾸준히 운동해요!

운동은 몸속 노폐물이나 독소의 배출을 도와요!

전문가들은 보통 주 3~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뇌경색과 뇌출혈의 전조증상

아직 추위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특히 뇌혈관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뇌혈관질환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글 편집부 감수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환절기에 주의해야 하는

뇌경색과 뇌출혈

●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피가 흐르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그리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되어 혈액이 새어나가는 질환’이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으키는 요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흡연, 음주 등이다. 특히 고령은 그 자체로도 뇌졸중의 위험요인이지만,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커 뇌졸중 발생률을 더욱 높인다. 추운 날씨, 급격한 일교차가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쌀쌀한 아침저녁과 비교적 따뜻한 낮의 기온 차이가 크면 우리 몸의 혈관은 큰 일교차에 반응해 갑작스럽게 수축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재발률이 높고, 안면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 후유증이 심각하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는 점,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편측마비, 언어장애 등 전조증상이 있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뇌혈관질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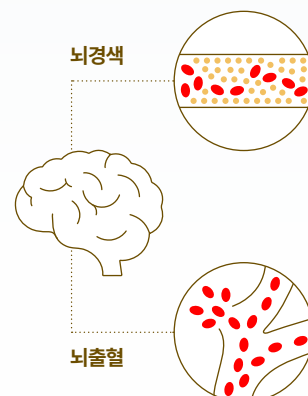
예방하려면

● 뇌경색과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이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건강을 위한 지침으로 뇌혈관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

뇌혈관질환을 예방하려면 먼저 체온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추운 새벽이

뇌경색과 뇌출혈

우리 몸은 자동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뇌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3분의 1을 사용하는데도, 건강한 사람은 머릿속의 압력이 심각하게 높아지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뇌혈관이 탄력적으로 수축하고 확장하며 피가 잘 흐르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뇌혈관이 딱딱해져서 피가 잘 지나가지 못하거나(뇌경색), 터져버린다면(뇌출혈) 우리 몸에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밤에는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따뜻한 낮에는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으면 급격한 혈관 수축을 막아 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틈틈이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양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한다. 일주일에 3~4회, 1회 30분 이상 걷기 등 규칙적인 운동과 절주, 금연 등으로 개인 건강 관리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고령자는 환절기를 맞아 몸 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것을 권한다. 나아가 뇌경색과 뇌출혈의 전조증상을 기억해두었다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병원을 찾는 자세도 필요하다.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중요

● 평소 예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도착하여 조치를 받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혈관 내 치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머리를 절개하여 치료하는 개두술 치료와 달리 혈관 내 치료는 허벅지 동맥 속으로 가느다란 관(카테터)을 삽입하여 막힌 뇌혈관을 뚫거나 터진 곳을 메우는 치료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3~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뇌혈관을 개통할 기회를 얻게 된다. 먼저 막힌 뇌혈관을 개통시키는 약물을 주입(혈전용해술)하고 상황을 지켜본다. 막힌 혈관이 개통되지 않으면 바로 뇌혈관 내부로 관(카테터)을 전진시켜 막힌 부위를 뚫고 혈전(피떡)을 밖으로 꺼내는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도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해야 생명을 구하고 예후를 호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뇌출혈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뇌혈관의 위치, 뇌동맥류, 혈관의 기형, 혈종, 종양 등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CT, MRI 검사를 진행하고, 더 많은 혈관 정보가 필요하면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다.

뇌혈관조영술은 방사선을 이용한 혈관 검사 방법이다. 환자의 허벅지 동맥을 통해 가는 관(카테터)을 삽입, 뇌혈관 입구에 둔 후 조영제를 투입해서 뇌혈관의 모양을 직접 보는 검사로, 혈관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뇌혈관이 터진 곳을 메우는 혈관 내 치료술을 가능하게 하는 검사법이다. 뇌출혈은 대부분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 빠른 치료를 권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혈관 내 치료술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막힌 혈관 부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뇌혈관을 개통해도 뇌 기능이 자동조절을 못 해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빠른 이송과 전문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무척 중요한 질환임을 기억해야 한다.

뇌경색과 뇌출혈의 전조증상

- ① 한쪽 얼굴이 둔하고, 저림이 느껴진다.
- ② 손에 힘이 없어 물건을 떨어트리거나 다리가 후들거린다.
- ③ 갑자기 남의 말을 알아듣거나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느껴진다.
- ④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 ⑤ 건망증이 심해진다.
- ⑥ 목뒤가 뻣뻣하고 머리가 무겁다.
- ⑦ 갑자기 어지러워져 서 있거나 걸을 수가 없다.
- ⑧ 분명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고 심하게 머리가 아프다.



영상의학과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과다.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다양한 영상 기법을 활용해 검사부터 진단, 치료, 영상정보 관리까지 환자 중심의 종합관리를 제공한다. 5개 분야별 의료진이 더욱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글 유미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환자 중심의 종합관리를 제공하는

영상의학과

검사를 받기 위해 누구나 찾는 영상의학과

1996년, 인하대병원 개원과 함께 시작해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는 병원을 찾는 거의 모든 환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거치는 큰 규모의 독립 부서다.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X선을 이용한 단순 촬영은 물론 유방촬영(Mamm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디지털 혈관조영(DSA), 투시 검사 등을 시행한다. 또한 X선과는 관련 없는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등도 시행한다.

영상의학과에서는 최첨단 영상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 등으로 다양한 부위의 조직 생검을 시행한다.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인터벤션 치료(중재 치료)는 앞서 획득한 영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부 농양의 배액, 급성 출혈의 지혈, 악성이나 양성 종양의 색전 치료, 만성 혈관 질환의 치료 등이다. 실시간 영상 유도 하에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한다.

영상의학과는 흉부·심장, 복부, 비뇨생식기, 신경·두경부, 근골격, 혈관 중재 및 유방·갑상샘 등으로 전문 분야가 세분화해 있는데, 최고의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세부 분야 전문 의료진들이 영상 진단 판독과 기술을 담당하는 점도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만의 장점이다.

2002년 풀 팩스 시스템(FULL PACS SYSTEM)을 도입한

이후 최근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획득, 디지털 촬영술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기법 등을 의료 영상에 접목하면서 최고의 디지털 의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이경희 과장은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는 국가가 정한 특수의료장비정도 관리평가에서 영상 품질 관리가 매우 우수하고 타 의료기관의 의료 영상 품질 관리에도 이바지하는 모범 수련병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한다.

최고의 치료와 진료를 제공하는 것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각 분야 전문의 20명을 중심으로 방사선사 62명, 간호사 6명, 행정직원 9명 등 100여 명에 가까운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의학과 구성원은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와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임무로 꼽는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직종과 부서가 주기적으로 집담회를 열어 다양한 시술과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영상 기법을 개발하려 노력한다. 또한 직종과 부서별 교육 전담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래의 영상의학 연구와 비전으로 최상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직종별·급수별 회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치료와 진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료 간 수평적인 믿음과 신뢰로 ‘원팀 되는 영상 의학과’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영상의학과는 2022년 12월에 급성기병원 4주기 인증을 통해 무결점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주변 환경 속에서도 영상의학과는 최첨단 영상 장비를 활용해 최소한의 방사선량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인터벤션 시술과 치료에서 인천 지역을 뛰어넘어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더불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료진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세계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외 영상의학과 발전에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역할

- 다양한 영상 검사기법의 개발, 시행 및 영상 검사를 통한 질병의 진단
- 영상 기법 유도 하의 생검, 비수술적 치료 및 협진을 통한 진료 자문
- 영상 기법 유도 하의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후 관리 및 진료 자문
-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PACS)을 기반으로 한 각종 영상정보의 처리, 보관 및 전송

보유 장비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는 현재 2022년에 구매한 3개 장비를 포함해 최첨단 기기인 전산화단층촬영기(CT) 5대, 2021년에 구매한 장비를 포함한 최신 고사양 3T를 중심으로 한 자기공명영상 촬영기(MRI) 3대, 초음파기기 4대, 혈관조영술 장비 2대의 특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세부 진료 분야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는 흉부·심장 영상의학, 복부·비뇨기계 영상의학, 근골격 영상의학, 신경·두경부 영상의학, 인터벤션 영상의학 등 전문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흉부 영상의학 이경희 교수

정확한 판독을 위하여

흉부 영상의학에서는 흉부를 이루는 모든 해부학적 구조에서 생기는 다양한 질병을 모두 다룹니다. 특히 많이 다루는 질병은 폐암, 폐렴, 외상, 심장혈관질환 등입니다. 흉부 영상의학에서 판독하는 검사는 흉부 X선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이 주를 이루고, 자기공명영상도 질환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말초형 폐암, 종격종괴, 흉막종양 등의 조직검사를 위해 경피적 경흉부침생검을 시행합니다. 폐결절 위치 결정술도 시행하는데, 작은 폐결절을 수술하기 전에 위치를 표시해주는 방법으로 비디오흉강경수술로 제한적 절제술의 시행에 도움을 줍니다.

형식적인 판독이나 판독 숫자를 늘리기보다 환자에게 꼭 필요하고 임상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판독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의학 흉부 분야의 최신 지식을 업데이트해서 판독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학제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복부 영상의학 김미영 교수
미래 의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현재 인하대병원 복부 영상의학과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는 IT, AI, Bio 등 첨단 과학의 발전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지금도 진행형이므로 미래 의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는 진료과입니다.

저는 복부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CT, MRI 영상 판독을 담당하며, 간, 담도, 췌장, 비장, 위장관 등 소화기계 질병과 신장, 방광을 포함한 산부인과 및 남성 비뇨기계 질환을 진료합니다. 또 X선, 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판독 및 진단, 진료 자문을 하며, 내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와 협진을 통해 최적의 진료를 하려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영상의학과는 더욱 정확한 병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임상과와 협업하여 함께 발전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골격 영상의학 **이로운 교수**

직접적인 환자 치료에
일익을 담당하다



근골격계 영상 분야를 전담합니다. 주로 척추와 사지 관절(어깨, 팔꿈치, 손목, 고관절, 무릎 등)의 퇴행성 질환과 염증 질환 및 종양의 진단과 술기를 시행합니다.

영상의학과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진료과입니다. 자연스럽게 영상의학 과에 찾아와서 단순 촬영(Plain X선), 초음파, CT, MRI 등의 검사를 받고, 임상과 의료진에게 결과를 듣지만, 정작 영상학과 의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 촬영실이나 CT·MRI실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사선사를 의사라고 잘못 알기도 하죠.

영상의학과는 의학 진단에 활용되는 다양한 최첨단 영상 장비(X선, 초음파, CT, MRI 등)를 이용하여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는 과입니다. 영상학과 의사는 해당 장비를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를 판독함으로써 임상과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미지의 품질 관리 및 의료 영



상 관련 특수 장비의 정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혹 영상의학과는 판독실에서 사진만 판독하는 과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 세부 전공에서 초음파 유도 하에 조직 생검이나 약물 주입, 배액 등을 시행해 간접적으로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과적 절제가 불가능한 간암 환자의 간동맥 화학 색전술(TACE), 담도 환자의 경피적 담관 배액술(PTBD),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 환자의 혈전용해술(Thrombolysis) 등 중재적 영상의학 기술을 통해 직접적인 환자 치료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과 더불어 환자에게 방사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영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프로토콜 연구, 영상 진단 장비의 꾸준한 정도 관리를 통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 **조순구 교수**

환자의 병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침단의학

인터벤션 영상의학을 담당합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은 혈관, 비혈관, 종양 인터벤션으로 분류합니다. 인터벤션은 대부분 혈관 촬영실에서 시술이 진행되며, 현재 우리 병원 혈관 촬영실에는 Siemens Artis Zee Biplane과 Philips Allura Clarity Biplane이라는 혈관 촬영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 혈관 촬영기 1대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벤션은 판독을 주로 하는 기존 영상의학과 달리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완화하는 분야입니다.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침단의학으로, 대부분 전신마취 없이 부분마취를 시행해 환자와 의사가 서로 대화하며 시술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들은 여러 과가 함께 모이고, 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도 여럿이 모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께 상의하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의사들의 노력을 전적으로 믿고 협조해 주셔야만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간혹 시술 중 벌어지는 여러 의사 간의 상의를 대리 시술로 오해



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안해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오해일 뿐, 숙련된 전문의들이 최고의 기술로 시술하고 있음을 믿고 시술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자가 처한 각 상황에서 어떤 시술을 어디까지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향후 여생과 예후에 최선인지를 늘 고민합니다. 환자는 고객이기 전, ‘측은지심’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람임을 늘 새기며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인터벤션 분야는 초심 그대로 환자를 만나고, 최선의 진료로 치료하겠습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 대표 시술 질병

혈관 인터벤션	• 동맥경화 등으로 좁아진 혈관의 확장, 재개통술 • 동정맥루 협착의 확장술 • 각종 출혈 환자의 혈관 내 지혈술 • 심부정맥 혈전 제거술 •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
비혈관 인터벤션	• 각종 장기에 발생한 농양 제거술 • 흉수 및 복수 배액술 • 경피적 신장 배액술 • 담도, 담낭 배액술 및 스텐트 삽입술 • 요관 카테터 삽입술
종양 인터벤션	• 간암 화학 색전 치료 및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 암 고주파 소작술

영상의학과 책임지도전문의 **이하영 교수**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판독과 기술

전문 진료 분야는 신경계 및 두경부 영상, 갑상샘 초음파 및 인터벤션(세침흡인검사, 생검, 에탄올 절제술)입니다. 뇌신경계의 허혈성 및 혈관 질환, 염증 및 종양, 퇴행성 질환 및 염증과 종양을 포함한 두경부 질환의 진단, 갑상샘 결절 및 미만성 갑상샘 질환의 초음파 진단을 담당합니다.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판독과 기술을 하자’고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뇌 영상을 보는 신경계 분야에서는 주로 CT와 MRI를 이용하고, 그중에서도 MRI가 기본 검사입니다. 두경부 질환은 일차적으로는 CT를 시행하지만, 두경부암의 병기 설정이나 기타 특수한 적응증에는 추가로 MRI를 시행합니다. 갑상샘은 초음파검사가 기본이고 암의 병기 결정에 CT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 결절 진단에는 초음파 소견을 바탕으로 적응증에 따라 가는 주삿바늘을 이용한 세침흡인 검사나 총생검 방식의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 결절은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관찰



되는 무척 흔한 질환이며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나 시술과 연관된 환자의 불편감 등을 줄이기 위해 영상의학 전문의의 표준진료지침을 따라 초음파와 세침 검사를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수년간 1·2차 병원의 초음파 진단이 늘어나면서 우연히 갑상샘 결절을 발견하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중 갑상샘암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인터넷을 검색해 얻은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두려워하는 환자도 꽤 많은데, 갑상샘 결절은 전문학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진료지침이 있습니다. 갑상샘암은 흔한 암이며 결절 중 암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교적 온순한 암입니다. 따라서 표준진료지침에 근거하여 숙련된 전문의가 진단·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찾아야 과잉 진료를 피하고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된 연구 관심 분야는 두경부 질환과 갑상샘입니다. 현재 KT 그리고 이비인후과 김지원 교수님과 공동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갑상샘 결절의 진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흉부 X선 및 CT, 뼈 나이 측정, MRI 뇌 위축도 측정 인공지능 S/W 등을 본원에서 이미 구축하거나 구축 예정인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영상의학과 의사의 업무 과부하를 줄여주고 진단 능력을 높여줄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와
<사운드 오브 뮤직>
따뜻한 봄에 활기찬
뮤지컬 영화를!



지루하게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기나긴 겨울 침잠에서 빠져나와
봄의 생기가 코끝을 간질인다. 이번 호에서는 잠들어 있던
뇌 속 도파민계를 깨울 생기발랄하고 즐거운
뮤지컬 영화 두 편을 소개한다.

글 송준호(신장내과 과장) 사진 네이버 영화 스틸컷



즐거움을 불러오는 뮤지컬

우리는 기분에 따라 표정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정에 따라 기분이 변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실제 그렇다는 것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은 뇌 속의 도파민계가 활성화하기 때문인데, 그냥 웃거나 좋은 것을 생각만 해도 머릿속 행복 신호계가 기지개를 켜는 것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노래 'My favorite things'에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개에 물렸을 때나 벌에 쏘였을 때, 마음이 슬플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괜찮아지지'. 뮤지컬 영화들이 그런 즐거움을 선사한다. 오래전 본 뮤지컬의 보석 같은 장면들은 '장미꽃 위 빗방울'이나 '새끼 고양이 수염'처럼 기억의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다가 뛰어나와 우울한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이번 호에서는 잠들어 있던 뇌 속 도파민계를 깨울 생기발랄하고 즐거운 뮤지컬을 소개하려 한다. 뮤지컬은 우리나라 공연 엔터테인먼트의 대세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을 공연장에 끌어들이며 흥겨움을 선사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은 고전 시대의 뮤지컬 영화다. 이 뮤지컬들은 지금도 지구 어디선가 공연되고 있다.

오드리 햅번의 매력

<마이 페어 레이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는 1964년 조지 큐커가 감독하고 오드리 햅번, 렉스 해리슨이 주연한 영화다. 1956년부터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 엔드에서 최고 인기를 얻으며 공연되던 작품으로 1964년 워너 브라더스사가 영화로 만들었다. 프레데릭 로위와 앨런 제이 러너 콤비의 음악을 앙드레 프레빈이 영화를 위해 편곡했다. 원작은 조지 버나드 쇼의 희극 「피그말리온(Pygmalion)」이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상으로 만들고 그것에 사랑에 빠진 조각가다.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조각상을 실제 여인으로 만들어 주자 피그말리온은 이 여인과 행복한 삶을 누린다. 영화는 이 이야기에서 주제를 빌려온다.

언어학자 헨리 히긴스 교수(렉스 해리슨)는 절친한 친구 피



히긴스 교수(렉스 해리슨)는 훈련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귀부인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코벤트 가든에서 꽃을 파는 부랑녀 일라이자 돌리틀(오드리 햅번)을 데려온다. 철저한 교육으로 천한 말씨와 촌스러운 악센트가 없어지고 귀부인으로 변모한 일라이자를 런던 사교계 사람들은 유럽 귀족으로 생각한다. 그 와중에 히긴스 교수는 피그말리온처럼 자신이 빚어낸 여인 일라이자를 사랑하게 된다.

커링 대령과 내기를 한다. 천한 여인을 데려와 교육하면 우아하고 세련된 귀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히긴스는 코벤트 가든에서 꽃을 파는 빈민 출신 부랑녀 일라이자 돌리틀(오드리 햅번)을 데려와 철저히 교육한다. 투박한 말씨와 촌스러운 악센트가 없어지고 귀부인으로 변모한 일라이자를 런던 사교계에 선보이자 사람들은 그녀를 정말 유럽의 귀족으로 생각한다. 히긴스 교수의 계획은 성공하고 내기는 끝났으며 일라이자는 떠난다. 그런데 히긴스는 피그말리온처럼 자신이 빚어낸 여인 일라이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이 페어 레이디의 대표곡은 일라이자가 부른 'I Could Have Dance All Night'이다. <왕과 나>의 'Shall we dance'와 함께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뮤지컬 곡일 것이다. 코벤트 가든에서 꽃을 팔던 일라이자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방과 따뜻한 난로, 의자를 그리며 부른 'Wouldn't It Be Lovely?', 일라이자의 A를 '아이'로 발음하는 습관을 바꾸기 위한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ne'을 반복해 연습시키는 'The Rain In Spain'도 유명한 곡이다.

<마이 페어 레이디>를 이끄는 주역은 일라이자를 열연한 오드리 햅번이다. 벨기에 출신의 1929년생 오드리 햅번은 25세에 <로마의 휴일>로 일약 세계적 스타가 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오드리 햅번은 <로마의 휴일>(1954)이나 <사브리



▼
오드리 헵번은 거리에서 꽃 파는 부랑녀, 언어를 배우는 청순한 처녀, 사교계의 관심을 사로잡는 화려한 귀부인의 다양한 모습의 스펙트럼을 눈부시게 보여주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은 브로드웨이에서 일라이자를 연기하는 줄리 앤드루스다. 아름답지만 결이 다르다.

나>(1954)의 앳되고 요정 같은 20대의 모습과 <티파니에서 아침을>(1962)이나 <샤레이드>(1963)에서 보이는 살짝 나이 든 30대의 모습으로 나뉜다. 일라이자 역을 맡았을 때 헵번은 이미 언뜻 나이가 보이는 30대 중반이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코벤트 가든의 부랑녀(분장만 거지처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태가 부랑녀 같은) 연기에서, 히긴스 교수의 집에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는 청순한 처녀의 모습, 런던 사교계의 관심을 사로잡는 화려한 여인의 모든 스펙트럼을 눈부시게 보여주었다.

<마이 페어 레이디>에는 유명한 캐스팅 비화가 있다. 원래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일라이자 역을 맡아왔던 배우는 줄리 앤드루스였다.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일라이자를 맡은 것은 인지도를 고려한 워너 브라더스의 선택이었다. 그 덕에 우리는 좀 더 팡팡 튀는 오드리의 마이 페어 레이디를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알다시피 줄리 앤드루스는 영국 배우 특유의 조금 이지적이고 조신스러운 면이 있다.

새옹지마로 줄리 앤드루스는 같은 해 디즈니의 <메리 포핀스>에 출연하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고 그 여세로 다음 해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 역에 기용된다. 재미있는 것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 역에는 오드리 헵번이 고려됐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된 후 간혹 오드리 헵번이 마리아 역을 맡은 <사운드 오브 뮤직>을 상상해본다. 벨기에 출신 오드리가 기타를 들고 도레미 송을 부르며(<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직접 기타를 치며 ‘문리버’를 불렀었다) 알프스를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혼자 즐거워진다.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에 퍼지는 노래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1965)은 뮤지컬 중 뮤지컬이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메리 포핀스>, <마이 페어 레이디>, <화니걸>, <올리버> 등 내로라하는 작품이 쏟아져 나온 1960년대 뮤지컬 영화의 정점을 찍은 영화다. 브로드웨이와 웨스트 엔드에서 뮤지컬 배우로 이미 알려져 있고 <메리 포핀스>로 실력을 보여준 줄리 앤드루스가 주연을 맡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로버트 와이즈가 메가폰을 잡았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개봉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전설적인 흥행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원작은 오스트리아 폰 트랩 가문의 여성 마리아 폰 트랩이 2차 대전 동안 자기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회고한 <트랩가 합창단 이야기(The story of the Trapp Family Singers)>다. 이야기의 무대는 알프스의 자연에 둘러싸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을 사랑하는 말쑥꾸러기 수습 수녀 마리아는 원장 수녀의 권유로 평균 해군 가문 폰 트랩가의 일곱 자녀의 가정교사가 된다. 호루라기로 하는 군대식 훈육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마리아는 도레미부터 음악을 가르친다. 음악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완고한 폰 트랩 대령(크리스토퍼 플러머)은 마리아에게 애정을 갖는다.

푸른 알프스의 넓은 언덕에서 시작하는 영화는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풍광과 폰 트랩가 아이들과 마리아의 일상에

멋지고 활기찬 음악들을 들려준다. <남태평양>, <왕과 나> 등 많은 히트작을 만든 리처드 로저스(작곡)와 오스카 해머스타인(작사) 2세 콤비의 뮤지컬 넘버는 하나하나가 주옥같다. 바람 소리, 새 소리와 호른 소리가 어우러지며 영화의 시작을 여는 'The Sound of Music', 폰 트랩가를 찾아가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마음을 다잡는 마리아의 'I have confidence',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달래는 비법을 알려주는 'My Favorite Thing', 알프스 언덕과 잘츠부르크를 종횡무진하며 노래하는 'Do-Re-Mi', 폰 트랩가의 장녀 리즐이 비밀스러운 풋사랑을 노래하는 'Sixteen going on seventeen' 등 버릴 노래가 없다. 영화 후반부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나치의 부역 강요 속에 폰 트랩 가족이 겪는 고난을 그린다. 작고 하얀 흰 꽃이 주는 희망과 조국을 노래하는 또 하나의 명곡 'Edelweiss'는 이 후반부에 나온다. 조국 오스트리아를 잃은 폰 트랩 대령과 청중이 함께 부르는 감동의 이 곡은 병상의 해머스타인 2세가 마지막으로 만든 유작이기도 하다.



음악을 사랑하는 말쑥꾸러기 수습 수녀 마리아는 폰 트랩가의 일곱 자녀의 가정교사가 된다. 호루라기로 하는 군대식 훈육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마리아는 도레미부터 음악을 가르친다. 영화에서 알프스의 푸른 언덕과 작은 성과 강이 보이는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풍광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하다.

장미꽃 위의 빗방울들과 새끼 고양이의 수염
밝은 구리 주전자와 따뜻한 양모 장갑
갈색 종이로 싸여 끈이 묶인 소포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 My Favorite Things, 사운드 오브 뮤직 -

뇌의 행복 신호계를 켜는 뮤지컬 영화

뮤지컬 영화는 1960년대를 정점으로 팝 뮤직과 TV의 등장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다. 오랜 침체기 동안 조용히 실험과 진보를 반복하던 뮤지컬은 영국 웨스트 엔드에서 다시 살아난다. 마법같이 화려한 무대, 감동 스토리, 귀에 달라붙는 멜로디로 나타난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카메론 매킨토시의 대작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등은 영화를 능가하는 메가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오페라의 유령>이 LG아트센터에서 7개월 동안 공연해 2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본격적인 뮤지컬 시장을 열었다.

새벽같이 인터넷 표를 구매하고, 백신 맞아 가며 공연 현장을 찾는 마니아들은 정말 즐거워 보인다. 공연장이든, 스크린이든 뮤지컬은 시름을 잊고 뇌의 행복 신호계를 켜는 황홀한 경험을 선사한다. 최근 들어 스크린에 정통 뮤지컬이 돌아오는 반가운 조짐도 있다. 2016년 아카데미를 휩쓴 <라라랜드>나 최근 스티븐 스필버그가 리메이크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이 그렇다. 공연 뮤지컬과 달리 스크린으로 보는 뮤지컬은 또 다른 느낌이다. 공연 뮤지컬이 라디오를 켜고 듣는 느낌이라면 영화 뮤지컬은 소중히 간직한 LP를 듣는 것과 같다. 울적한 날 꺼내 턴테이블에 걸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재킷에 잘 넣어 책장에 꽂아 놓는다. 언젠가 좋은 날 다시 꺼내 보리라 생각하며...



글을 쓴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과장이자 진료와 연구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 주 한 두 편 새 영화와 옛날 영화를 찾아보는 영화광으로 통한다. 수천 편의 영화를 감상한 그가 고심 끝에 선별해 매호 소개하는 영화 두 편을 챙겨보다 보면 어느 틈에 영화가 더 좋아질 것이다.

당신을
위한

봄날의 밥상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켜는 봄.
찬란한 계절을 마주한 기쁨도 잠시, 봄날의 나른한 바람은
우리 입맛과 의욕을 데려간다. 이때 영양 만점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챙겨 먹자. 사포닌을 가득 가진
더덕은 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
제철 맞은 주꾸미는 타우린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 피로 해소에 좋다.

사진 백기광, 송인호(스튜디오100) 요리&스타일링 박정윤(노하우스)



더덕구이

[재료(2인 기준)]

더덕 200g, 참기름 1T, 통깨 적당량
고추장 양념 고추장 1T, 다진 마늘 1t, 설탕 1/2T,
 올리고당 1T, 간장 1/2T, 물 1T, 참기름 1/2T

[만들기]

1. —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방망이로 두드려 펴 준비한다.
2. — 양념장 재료를 섞어 준비한다.
3. — 더덕에 참기름을 발라 1차로 팬에 굽는다.
4. — 초벌을 한 더덕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타지 않게 굽는다.

■More Tip■ 더덕 살 때

더덕은 뿌리가 굵고 희고 곧게 뻗은 것을 골라야 한다. 또 주름이 깊지 않고 잔가지가 적은 것이 좋다.
 찌갠을 때 하얀 즙액이 풍부하고 심이 없으며, 머리 부분이 1cm 이하로 짧아야 한다.





주꾸미 숙회

[재료(2인 기준)]

주꾸미 6마리, 굵은 소금 1T, 밀가루 1T
초고추장 양념 고추장 3T, 설탕 1T, 식초 1T, 마늘 1t,
 참기름 1t

[만들기]

1. — 주꾸미는 굵은 소금과 밀가루를 넣고 손으로 주물러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
2. — 끓는 물에 주꾸미를 30초간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한다.
3. — 데친 주꾸미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다.
4. — 초고추장 양념 재료를 섞은 뒤 곁들인다.

주꾸미무침

[재료(2인 기준)]

주꾸미 300g, 미나리 60g, 양파 1/4개, 당근 1/3개,
 오이 1/2개, 홍고추 1개, 밀가루·굵은 소금 적당량
양념장 고추장 2T, 고춧가루 1T, 식초 1T, 설탕 1T,
 올리고당 1T, 다진 마늘 1/2T

[만들기]

1. — 주꾸미는 밀가루와 굵은 소금을 넣고 손으로 주물러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
2. — 미나리는 적당한 길이로 썰고, 오이, 당근은 반달 썰고, 양파는 굵게 채 썬다.
3. — 분량의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4. — 주꾸미는 끓는 물에 데쳐 준비한다.
5. — 볼에 주꾸미, 양념장, 채소를 넣고 살짝 버무려 완성한다.

■MoreTip■ 주꾸미 손질할 때

주꾸미 머리와 다리 연결 부분에 칼집을 낸 후 머리 부분을 뒤집어 내장과 먹물을 떼어낸다. 먹물은 손이나 칼로 연결 부분을 살짝 누르면서 밀어내면 제거할 수 있다. 그다음 다리를 뒤집어 안쪽에 박힌 입을 빼낸다.



봄은 우리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축복한다. 여전히 쉽게, 또 멀리 떠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마음은 두근두근 설레는 춘삼월이다. 이국적인 풍경은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충분하다. 지난해 11월에 개관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서울공예박물관으로 봄나들이 가보자.

글 유미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서울공예박물관

품격과 여백을
갖춘 명소



풍문여고의 이유 있는 변신

낡은 건물 구조의 원형이나 일부를 그대로 살려 새로운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 ‘오래된 것이 곧 예술’이라는 명제를 몸소 보여준다. 옛 풍문여고 터에 들어선 서울공예박물관은 구) 풍문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박물관 안내동과 한옥을 새롭게 건축해 탄생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공예 전문 국립박물관의 탄생이 더욱 반가운 이유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 분야별 공예를 모두 만날 수 있다. 소장하는 공예작품은 국가 지정문화재 등을 포함해 2만3,000여 점에 달한다. 소장품에는 보물 ‘자수 사계분경도’, ‘자수 가사’ 등 국가 지정문화재 6건, ‘백자청화파초문호’, ‘경해인빈상시호죽책’ 등 서울시 지정문화재 10건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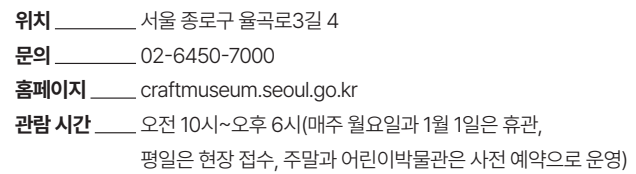
박물관은 전시 1동, 전시 2동, 전시 3동, 교육동(어린이박물관), 박물관 안내동, 관리동, 공예별당 등 전체 7개 동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전부 돌아보려면 하루가 꼬박 걸릴 정도로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

공예마당(바깥마당)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베이지색의 단정한 건물은 박물관의 본관 격인 전시 1동이다. 여러 창문과 유리로 만든 정문은 흡사 외국의 어느 박물관을 여행하는 듯 착각할 정도로 인상 깊다. 실제로 한국 박물관은 외벽에 대부분 포천석이라는 회색 화강암을 쓰는데, 전시 1동은 이집트 룩소르 지방의 석재 색깔이라는 ‘룩소르 베이지 대리석’을 써서 색감이 한층 밝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와서 이 건물과 ‘깎맞춤’하고 사진을 찍는 게 MZ세대의 문화이기도 하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다. 3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이 땅의 풀로 엮는 초경공예>전이다. 풀과 짚, 덩굴, 나무껍질 등을 이용해 만든 공예품을 ‘의·식·주’ 주제별로 선보인다. 각 지역 장인들이 재료를 채취해 가공한 뒤 이를 엮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아카이브 영상과 제작 도구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상설 전시는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공예 역사를 다룬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허동화·박영숙 컬렉션으로 구성된 직물 공예 전시 <자수, 꽃이 피다>, 궁중에서 사용된 화려한 보자기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소박한 보자기까지, 소재·구성 방법의 차이와 다양한 용도를 소개하는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 등이 열리고 있다.

전시뿐 아니라 공예를 체험하고, 공예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 체험형 프로그램이 있는 ‘열린 박물관’을 지향한다. 서울공예박물관이 눈길을 끄는 건 손으로 질감을 느끼는 ‘촉각 관람존’과 음성해설 서비스 등을 마련해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각 건물과 전시실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촉지도가 있고, 주요 전시 공간에는 손으로 질감을 느껴볼 수 있는 촉각 관람존과 전시 이해를 돕는 음성해설 서비스를 준비해뒀으니 누구라도 망설이지 말고 들러 공예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자.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다

지난해 7월 16일에 사전관람을 시작한 이후 4개월간 7만 6,000명 넘는 관람객이 서울공예박물관을 찾았다(11월 25일 기준). 공예작품은 물론이고, 현대적인 건물과 야외에 설치한 공예작품을 배경으로 찍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만 해도 1만 개가 넘는다. 이렇게 서울공예박물관은 누구라도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서울공예박물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역시 아기자기한 카페와 맛집이 많아 MZ세대는 물론 서울을 찾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정독도서관 방향으로 올라가는 감고당길 초입에 자리하는데, 특유의 운치 있는 정서를 뽐내는 감고당길은 얼마 전 종영한 SBS 드라마 <그해 우리는> 촬영지다. 드라마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이들이 드라마의 발자취를 따라 찾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공예박물관 일대에서는 예술을 보는 심미안을 길러주는 미술관 산책이 가능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선재센터, 학교재갤러리 등이 모두 이곳에 있다. 황생가칼국수, 복춘손만두는 이 동네의 오랜 맛집이다. 한 곳을 오래 지켜온 장인의 뜻심과 깊은 손맛은 아직 봄을 맞이하기 전인 우리의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다.



박원 진료부원장 머지않아 마주할 우리 병원의 미래

인하대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원 교수가
올해부터 진료부원장을 맡아
인하대병원의 핵심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의 개원부터 함께 해오며
병원을 향한 애정을 가득 품은 그가 그리는
인하대병원의 모습이 궁금했다.

글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전문가로서 설명하고 권하고 동의를 구하다

인하대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원 교수는 류머티즘 분과 전문의를 국내에서 8번째로 취득한 인물이다. 1992년의 일이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하대병원 개원 직전인 1996년 3월에 부임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인하대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진료해 온 그는 그간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대한내과학회 부회장을 각각 역임했다. 그의 전문진료 분야는 팔, 다리, 허리 등 근골격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염증이나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쉽게 수술하지 않는 ‘내과’ 분야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런 박원 교수가 인하대병원의 진료부원장을 맡게 됐다. 이전에도 유사한 보직을 맡은 경험을 가진 그는 결코 자기 능력을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한 소감을 전한다.

“1996년 개원 당시와 이전에 유사한 보직을 맡았던 기억을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부원장 자리를 맡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또한 우리 병원은 최근 몇 년간 질적·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으므로 업무 또한 그만큼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협조와



특히 저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이 자리를 맡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는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 특히 환자를 만날 때 스스로 되새기는 말이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는 의사로서 의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보건정책이나 보험 규정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문가로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권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은 환자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것이 병원과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상태, 나이,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보험의 제도권 안에서, 맞춤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전문의료인의 책무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인하대병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원하는 진료를 추구한다. 먼저 제도권 내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원하는 미래의 첨단진료 기술을 도입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술이 진료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그에게 미래 의료를 위한 구상과 준비에 관해 물었다. 그는 현재의 개념으로 비대면 혹은 지역을 넘어서는 진료라는 것이, 기술의 발달로 대면 직접 진료나 전문진료와 차이가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훗날을 대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특수분야 의료진 확보, 후학 양성 등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마땅히 지역사회의 다른 의료기관들과 협조해야 할 진료에는 상호 공존·공생할 것입니다. 또한 인하대병원은 김포시에 새로운 병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병원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첨단 의료 시스템

을 갖춘 예정입니다.”

인하대병원은 전국 병원 평가에서 손꼽히는 1등급 상급종합병원이다. 인하대병원을 향한 박원 진료부원장의 자부심은 상당하다. 병원 가족들에게 건네는 당부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직원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자부심을 품고 지속해서 공공성과 첨단 미래 지향성을 잘 조화시켜나가야겠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지역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환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병원이 되어야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사려 깊다. 그의 말을 들으면 인하대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인하대병원을 향한 신뢰가 탄탄해질 것이다.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의 다른 의료기관과 공고히 협력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환자가 누려야 할 전문진료를 알뜰히 챙겨드리고, 그 성과를 환자와 지역사회 시민들과 나누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원 진료부원장은 의과대학 교수로서 정년이 될 때까지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다. 즉 그 역할은 진료와 임상 연구, 교육, 후학 양성이다. 정년 후에는 그의 철학과 배짱에 맞는 개인 ‘류머티즘 클리닉’을 만들고 싶다. 그의 꿈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근사한 ‘류머티즘 전문센터’를 설립해 기본적으로 표준적이며 교과서적인, 국가 의료 제도권 내의 치료를 널리 보급하고, 동시에 공인된 첨단 치료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훗날의 목표다. 의술을 베풀어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들고 싶은, 뻗속까지의 사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코로나19 범유행은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전 세계적 비상사태지만 결코 이기지 못할 난관은 아니기에 곧 극복할 것을 확신한다”고 희망과 긍정의 말을 전한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 감염병이 사라지고, 인하대병원이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이 모든 일이 머지않아 가능해질 것 같다.

최광성 의생명연구원장 우리 병원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병원의 주요 역할 중 ‘연구’를 총괄한다. 올해부터 인하대병원 피부과 최광성 교수가 의생명연구원장을 맡아 이끌어간다. 의생명연구원의 역할이 곧 인하대병원의 훗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그를 만나 확신했다.

글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연구를 총괄하는 의생명연구원

1998년에 개설한 임상중양연구소를 모태로 하는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2012년, 연구 분야의 발전에 따라 신설된 여러 연구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설립했다. 의생명연구원에서는 대학병원의 주요 역할인 진료, 연구, 교육 중 ‘연구’를 총괄한다. 교수진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연구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행정 절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시설, 연구원 등을 관리한다. 의생명연구원 산하에는 임상시험센터, 중개연구센터, 기관연구윤리심의실, 연구지원팀, 피험자보호센터, 바이오뱅크센터 등이 있다. 2022년 현재 의생명연구원은 제2기 연구 중심병원으로 도약하려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준비의 하나로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 전



담 교수 증원과 연구비 증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의생명연구원의 행보에 무척 중요한 이 시기에 인하대병원 피부과 최광성 교수가 의생명연구원장을 맡게 됐다. 그의 소감은 짧지만 확고하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경영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 연구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의 역할 중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무척 중요한 항목이다. 그는 의생명연구원장으로서 병원 직원들과 인하대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응원을 당부한다.

“연구 분야는 즉시 병원의 수입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아니지만, 인하대병원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해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하대병원의 직원과 병원을 찾는



환자들께서도 인하대병원의 여러 교수님이 최선의 치료를 위해 임상 및 기초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최광성 의생명연구원장은 인하대병원이 개원한 지 1년 후인 1997년부터 피부과에서 전임의(Fellow)로 근무를 시작했다. 올해로 25년째다. 그는 모발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며, 그를 찾는 진료 환자의 절반 이상은 탈모 환자들이다.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아토피피부염, 백반증도 그가 치료하는 질환이다. 모발학회, 백반증학회, 외과학회에서 활동하는 그는 현재 대한모발학회장으로 학회를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피부과학회 부회장, 대한백반증 색소학회 부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진료와 연

구, 다양한 학회 활동 등 늘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는 최광성 의생명연구원장이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 환자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저에게 진료받으려고 장기간 예약을 기다리고, 멀리서 오는 환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환자 스스로 질환을 잘 이해하도록 가능한 한 충분히 상담하고, 환자가 치료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면 평소 체력 관리를 통해 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트니스센터에서 유산소와 웨이트 운동을 번갈아 하며 건강을 관리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원활히 운동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대신 요즘에는 가능한 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그의 머릿속은 몇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다. ‘환자에게 존경받는 의사’, 그러기 위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2022년에 인하대병원이 연구 중심병원으로 지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집착이나 욕심은 없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主而生其心)’은 그가 평소 유지하는 삶의 태도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만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물질 혹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기대는 당연하지만, 일한다고 늘 성공하지 않고, 또 성공하더라도 늘 보상이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성공이나 보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늘 필요하다는 말인데, 저 역시 쉽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한곳에 머무는 이에게는 결코 성장과 도약이 따르지 않는다. 조금 두렵더라도 꾸준히 응시하고 지속해서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생명연구원의 목표와 최광성 의생명연구원장의 다짐은 건강증진과 의학 발전을 위한 불씨이자 초석이다. 먼 미래는 얼마 가지 않아 만날 우리의 내일이기에 오늘도 의생명연구원은 까만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혈관외과 강지희 교수 & 유방외과 박신영 교수 스스로 증명하는 빛나는 가치

안타깝게도 요즘은 외과 전공에 도전하는 젊은 의사가 많지 않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우려가 큰 현실이다. 그렇기에 인하대병원 혈관외과 강지희 교수와 유방외과 박신영 교수가 더욱 반갑다. “외과 의사라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만났다.

글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외과의사가 되다

Q >>> 먼저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강지희 교수 수련병원에서 혈관외과 전임의(Fellow)를 마치고 마침 인하대병원에 알맞은 자리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박신영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속병원인 인하대병원에서 수련받아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모교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Q >>> 각각 혈관외과와 유방암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지희 교수 혈관외과는 외과 분과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수련하는 동안 지도교수님이 혈관외과 교수님이신 것도 큰 역할을 했어요. 혈관외과는 다른 수술보다 좀 더 미세한 술기가 필요한 분야이고, 내과 질환을 앓는 이들이 대다수여서 다른 분과와는 다소 다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재건하는 Reconstructive Procedure라는 것도 의미를 두는 분야인데, 이런 혈관외과가 매력적



▶
행복한 의사
인터뷰 영상 보기

유방외과
박신영 교수



혈관외과
강지희 교수





으로 다가왔어요.

박신영 교수 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손을 사용하여 술기를 하는 분야라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방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치료 결과가 좋아 타 암종에 비해(갑상샘암 제외) 환자의 생존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수술이나 여러 보조요법으로 환자의 생존율에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해 외과 내에서도 유방 분과를 선택했어요. 종양 치료적 관점으로도 지금까지 수술만큼 다른 정상조직에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시키면서도 빠르게 원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치료 기술이 발전하겠지만 지금까지 사람이 하는 직접적인 술기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기에 이런 역할이 외과계 의사들의 존재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하다

◎N >>>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강지희 교수 수술을 집도한 모든 선생님이 그럴 테지만, 제가 수술한 모든 환자의 수술 장면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

고 기억합니다.

박신영 교수 외과 의사들은 처음 자신이 집도의로 수술했던 순간, 그 환자가 무사히 퇴원했던 기쁨을 기억하고, 또 자신이 담당했던 환자를 처음으로 잃었던 큰 상실감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하나하나, 소중한 기억의 조각조각이 외과 의사로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N >>> 진료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나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강지희 교수 사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매 순간 그런 감동을 가질 만한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생명이 위태로운 중요한 수술을 마치면 안도하고, 수술 직후에 환자가 눈을 뜨고 저와 대화를 나누면 또 한 번 안도하고, 회복 기간을 거쳐 잘 퇴원하면 그제야 마음 편히 잘 수 있지요. 또 환자가 사복을 입고 외래를 찾을 때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여유가 생깁니다. 큰 수술 받고 퇴원했다가 외래에서 건강하게 만나는 순간이 가장 기쁩니다.

박신영 교수 의사가 되어 수련의를 거치고 주치의로 일하는 지금까지 늘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치료과정을 잘 견디고 완쾌한 환자를 보면 무척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지만, 힘든 과정을 함께 싸우며 버텼으나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한 경우 안타까움은 물론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저는 주로 유방암 환자를 진료하지만, 대학병원의 시스템상 외과 전문의의 한 명으로서 응급 당직을 돌아가며 담당합니다. 그런데 당직 때는 예기치 못한 위중한 환자들을 진료하기도 합니다. 응급 당직 때는 늘 마음속으로 ‘오늘도 부디 무사히’라고 생각하죠.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가장 좋고, 외과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제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길 바랍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손쓸 수 없는 상태로 내원한 환자를 대할 때면 안타까움이 너무 큼니다.

◎N >>> 환자를 만나는 교수님의 진료 철학은 무엇인가요?

강지희 교수 혈관외과 질환 특성상 치료 결정의 원칙은 사례별(Case by Case)로 정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요. 제가 환자에게 행한 치료와 그 결과가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료 철학입니다.

박신영 교수 이전에 비하면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한계가 있고, 여전히 발생기전을 모르는 질환도 많습니다. 실제 임상 상황은 정답이 하나인 문제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과 의사는 진료하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재 수술이 환자에게 필요한지,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을지, 오히려 수술이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닌지 등 수많은 순간의 갈림길에 섭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도 많기에 과연 결정이 옳았는지 되돌아보며 다시 고민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여러 선배 의사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진료 철학을 내세울 만한 위치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①N >>> **외과를 희망하는 전공의나 이미 외과를 선택해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지희 교수 아시다시피 외과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정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외과 수술의 위험성, 책임에 대한 부담, 술기 자체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힘들기만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외과를 피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외과에서의 역할이 명확하고, 그 역할이 언젠가는 크게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수술 자체에 관심이 있고, 환자를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며 좋아하는 마음을 품은, 외과를 전공하는 후배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박신영 교수 외과는 사실 인기가 없죠. 하지만 수술을 통해 극적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진료과이고, 힘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이었는데 최근 3년으로 줄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기본능력치가 전공의 수련 시기에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수술을 마음대로 가서 보고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련 기간이야말로 여러 교수님의 수술에 참여하여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타산지석 삼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수련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외과 의사로서의 기본과 실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짧아진 수련 시기를 소중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①N >>> **인하대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강지희 교수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에는 혈관이 계속 막히는데도 끝내 금연을 못 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를 대할 때면 막막함이 앞섭니다. 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다면 무조건 금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모두 금연하시길 당부드려요.

박신영 교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한 번도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느껴지면 방치하지 말고 진료나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증상이 진행된 후 알게 되어 완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보면 무척 안타깝습니다. 유방에서 뭔가 만져지는 느낌, 유두 분비물, 피부 변화 등 유방에 특이 증상이 있거나,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 40세 이상인데 한 번도 유방검진을 받지 않은 분은 유방 진료나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인하人을 소개합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칭찬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칭찬 직원’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칭찬 직원으로 선정된 <친절한 인하人>을 소개합니다(소속은 수상 시점 기준).

정리 서비스혁신팀



박서연(입원간호 4팀(동 8병동))

칭찬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남다른 열정으로 보살펴 주신 박서연 간호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인하대병원의 비전에 따라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간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환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인하인이 되겠습니다.



류동진(정형외과)

칭찬합니다! 교수님과 상담 후 환자의 가족인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팀원들과 서로 협력하여 잘 치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하대병원에 내원하신 모든 환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박신영(외과)

칭찬합니다! 유방암 환자인데, 수술을 너무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잘 치료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한 것 같습니다. 암을 이겨 나가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으로 여기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최서희(입원간호 4팀(7병동))

칭찬합니다! 코로나에 걸려 보호자 없이 혼자 병실에 있으면서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최서희 간호사님께서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시고 누구보다 친절하게 간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밝고 친절한 선생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 주인공으로 상을 받게 되어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하대병원 간호사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치유와 건강 회복을 위해 전문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간호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임주한(혈액종양내과)

칭찬합니다! 우리 교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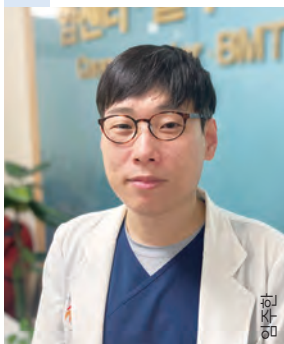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임주한 교수님,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모든 환자의 쾌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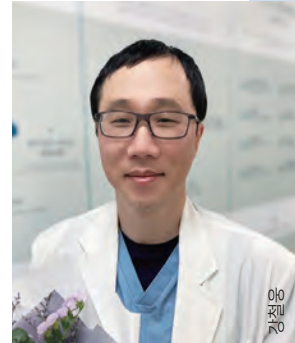
외래간호팀 가정간호사업실

칭찬합니다! 시간 약속 잘 지켜주시고, 친절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데, 간호사님이 방문해 치료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인하대병원을 대표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가정간호사업실이 되겠습니다.



2월



강철웅(흉부외과)

칭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교수님께서 10시간 이상 긴 수술을 해주셔서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하대병원 환자들이 모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입원간호 3팀 (서9병동))

칭찬합니다! 퇴원하는 순간까지도 제가 챙기지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간호사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환자 보호자에게 시작은 친절로, 마무리는 감동을 드리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영상 제목

2021년의 인하대병원을 기록하며

채널 목록

소식을 전하다

일자

2021. 12. 30

내용

2021년 인하대병원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21년 인하대병원의 주요 이슈와 뉴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2021년의 인하대병원을 기록하며> 영상입니다. 2021년의
 인하대병원 기록을 보니, 인하대병원의 2022년이 더 기대됩니다!

**영상 제목**

코어 운동 3가지 알아봐요!

채널 목록

인하7730 운동

일자

2022. 02. 11

내용

2022년 새해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혹시 운동하기, 살빼기 아닌가요?
 인하 7730 운동에서 다양한 코어 운동을
 소개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부가 튼튼해야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밖에도 다양한 운동법을
 업로드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인하대병원
 유튜브로 접속!

**영상 제목**

중증근무력증희귀질환 바로 알기

채널 목록

지식을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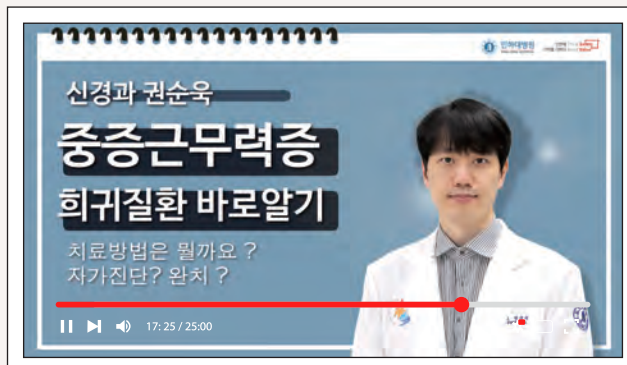
일자

2022. 01. 03

내용

희귀질환 바로 알기! 중증근무력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증근무력증의 증상부터
 자가 진단 방법,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인하대병원 신경과 권순욱 교수님이 전하는
 중증근무력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INHA YouTube





주제
당뇨병의 원인과 예방법

내분비내과 김소현 교수

언론사
여성조선



주제
2021년 의료계 올해의 인물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

언론사
E-의료정보



주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 우려

소아청소년과 김동현 교수

언론사
데일리메디



주제
허리-어깨 찌릿!
원인 모를 근육통 반복되면
'근막통증후군' 의심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INHA Media



주제
소변이 붉다면 몸이 보낸
적신호, 반드시
검사 필요한 '혈뇨'

비뇨의학과 강동혁 교수
비뇨의학과 정두용 교수

언론사
경인일보



주제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의
국경을 비워둔 정부

신장내과 송준호 교수

언론사
경기일보



주제
인천 최초 로봇 갑상선 수술
700례 돌파

외과 이진욱 교수

언론사
인천투데이



주제
우주서 생긴 신체 문제 해결...
우주의학 연구 확대돼야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
(우주항공의과학연구소장)

언론사
헬스조선

1 희귀질환 경기 서북부권 거점센터, 심포지엄 성료

인하대병원 희귀질환 경기 서북부권 거점센터가 2021년 12월 3일에 ‘제4회 심포지엄:희귀유전질환 진단 및 유전상담의 실제’를 개최했다. 김영모 인하대병원 병원장과 이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션을 둘로 나눠 거점센터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는 ‘미진단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 검사의 이용과 진단 성과’, 2부는 ‘유전상담의 실제’에 대한 지견들이 오갔다. 외부 인사는 서고훈 3Billion 의학이사(유전체 검사의 기본과 임상적 유용성), 기창석 녹십자지놈 대표이사(Whole Genome Sequencing을 이용한 미진단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가 참여했다.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인하대병원에서는 김수진·박지선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현지 이비인후과 교수, 최수란 산부인과 교수, 장우리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권순욱 신경과 교수, 신성희·백용수 심장내과 교수 등이 참여해 진단과 상담 중례를 바탕으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과거에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많은 희귀유전질환이 최근 수년간 급속히 발전한 유전체 대량 분석과 정보처리 기술, 유전체 편집 등을 통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진단과 치료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 문을 연 인하대병원 희귀유전질환센터는 2018년에 ‘극희귀질환 진단 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권역별 거점센터 중심의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2019년 2월부터는 질병관리청 지정 ‘희귀질환 경기 서북부권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지은 센터장은 “발전하고 있는 유전체 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센터의 희귀질환 진료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진단 이후에는 세심한 유전상담으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 관리와 예방을 도우면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지지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 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서 전국 2위

인하대병원이 ‘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1위 타이틀 획득을 포함해 5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한 쾌거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02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법정 기준 충족 여부 ▶기능성의 4개 지표를 살폈다.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5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다. 이는 인하대병원이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신속한 중증 응급환자 조치 프로세스와 견고한 협진 체계를 갖췄다. 또한 권역센터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수준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은 “오랜 감염병 상황에서도 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해주고 우수한 평가까지 얻은 센터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며 “인하대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 수준과 운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



2



3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MOA 체결

2021년 2월 14일, 인하대병원이 인하대학교, 김포도시관리공사, (주)풍무역세권개발과 풍무지구 내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가칭)김포인하대병원 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이행될 전망이다.

이번 MOA는 지난해 7월 30일에 체결한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의 업무협약(MOU)’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 용지 9만㎡에 정석인하학원 산하 의료·교육 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이다.

인하대병원은 700병상 이상 규모의 최첨단 디지털 병원 건립에 나선다. 대학과 협력해 김포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고, 부속병원 등을 운영하며 김포시민들의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은 인허가와 제반 행정지원, 협약 이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지원한다. 대학 용지는 조성원이 이하로 무상 공급하고 협의를 통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은 1996년에 개원한 이후 인천 및 경기 서북부권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며 전국 단위 의료 질 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에서 최상위 수준을 달성해왔다.

김영모 인하대병원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각종 의료 질 평가 부문에서 계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국내 최상위 수준임을 자부한다”라며 “우리 병원이 최우선 가치로 삼는 ‘환자 안전’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로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4 AI 기업 아크릴과 글로벌 의료 서비스 발굴 MOU

2022년 2월 9일, 인하대병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아크릴과 글로벌 의료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우즈베키스탄 대상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에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크릴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구(舊)소련에서 독립한 독립국가연합(CIS)으로 글로벌 의료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하대병원과 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양사는 원격의료 시스템,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SaMD) 등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 또한 임상·시장 리서치, 마케팅 활동 등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이 차세대 비전으로 제시한 ‘AI 병원’ 설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모 인하대병원 병원장은 “의료 전문성을 보유한 인하대병원과 AI 기업 아크릴의 협약으로 글로벌 미래 핵심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길 바란다”라고 했다.

5 외래진료비 카카오 간편결제 서비스 개시

인하대병원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외래진료비 카카오 간편결제 수납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달 처음 도입한 입원진료비 간편결제 서비스와 더불어 확대된 비대면 수납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병원 외래진료 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할 때 외래창구나 무인 수납기(키오스크)를 이용해 수납해왔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진찰료와 검사비 등을 확인한 뒤 즉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외래진료 중이거나 진료를 마친 뒤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진료비 명세가 도착하면 앱 안에서 진료비를 결제하고, 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진료 당일 2개 이상의 진료과를 이용해도 마찬가지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진료비계산서나 원외처방전이 필요하다면 원내 무인 수납기 또는 원무 외래창구에서 출력해야 한다.

인하대병원은 수납을 위한 불필요한 이동과 소모되는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장기화한 감염병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퇴원비 수납에도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모바일 앱 ‘My 인하’에서 결제, 카카오톡 간편결제, 원무 외래창구 결제 등 환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이용 편의 증진 아이디어를 내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료 안내 (2022년 3월 10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이연지	한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옥	노인의학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감염내과 ☎2219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임재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김아름	일반내과	
		신현태	원격 피부과 의료상담	
		맹세리	일반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뇌신경센터 (BNC) ☎2370, 2375	신경과 NRNN	김 룰	파킨슨병, 이상행동, 신경계회귀질환, 어지럼증, 두통, 뇌전증(간질)질환, 수면질환	
		나정호	뇌신경질환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뇌전증(간질),수면장애,두통,어지러움증	
		윤혜원	뇌졸중,치매,뇌전증,수면장애	
		권순옥	근신경계질환, 루게릭병, 말초신경병, 근육병, 중증근 무력증,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외과 NSNN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뇌종양, 뇌동맥류, 경동맥질환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김경민	뇌종양, 소아,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뇌혈관센터 (CBC) ☎3860, 3865	신경과 (NRCB)	김 룰	파킨슨병, 이상행동, 신경계회귀질환, 어지럼증, 두통, 뇌전증(간질)질환, 수면질환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외과 (NSCB)		박수현	신경계중환자, 뇌졸중,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러움증	
		윤혜원	뇌졸중, 치매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배진우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뇌혈관기형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질환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윤 홍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내분비내과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홍성민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외과	최윤석	비만, 당뇨, 위수술	
		허윤석	비만, 당뇨, 위수술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김수진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후체력증진	
류마티스내과 ☎2210~1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통풍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김현정	유방암, 비뇨기암, 신장암, 소화기암		
	이정식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혈액암, 뇌암, 중추신경계, 피부암		
비뇨의학과 ☎2360	강동혁	비뇨기종양(신장암,방광암,전립선암),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로봇/복강경수술		
	김종원	비뇨기종양(방광암, 전립선암,신장암), 로봇/복강경수술, 비뇨기재건,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요로감염, 혈뇨, 요실금, 배뇨장애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이택	배뇨, 방광, 전립선, 소아		
	정두용	비뇨기종양(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신이식		
산부인과 ☎2270,2117	이방현	산과학, 일반산부인과학		
	장신아	일반부인과학, 부인과내분비학		
	최수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황성옥	종양학, 복강경		
성형외과 ☎3870	기세휘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목재건술, 미용수술		
	홍민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종양, 흉터, 미용성형, 육창, 보톡스 및 필러, 체형교정(복부성형)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진료과		교수	세부진공		
소아청소년과 ☎2260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열, 특수예방접종, 여행자의학		
		김수진	유전성대사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박정아	혈액, 종양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이주영	신생아, 미숙아, 발달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 내분비질환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전가원	신생아, 미숙아, 발달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주은영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 내분비질환, 선천성대사질환, 영유아건강검진		
소화기내과 ☎2224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박진석	간, 담도, 췌장질환		
		신종범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유정환	간		
		이도행	담도·췌장질환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임정현	위장관 질환, 위장관 운동성 질환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진영주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차보람	위장관 질환, 위장관 운동성 질환		
		김선영	소화기 질환		
이정남	소화기 질환				
신경과 ☎3860		권순욱	근신경계질환, 루게릭병, 말초신경병, 근육병, 중증근무력증,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두통, 어지러움증		
		김 룰	파킨슨병, 이상행동, 신경계허구질환, 어지럼증, 두통, 뇌전증(간질)질환, 수면질환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수현	신경계종환자, 뇌졸중,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러움증		
		배은기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성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김경민	뇌종양, 소아, 두부외상		
신경외과 ☎2370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질환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배진우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뇌혈관기형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윤 흥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소수, 두부외상		
		신장내과 ☎2229		김기표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클리닉 (KTC)	NHKT	김기표	신장이식		
		황선덕	신장이식		
	GSKT	강지희	신장이식, 혈관이식		
		정태영	신장이식, 혈관이식		
심뇌재활센터(RMCR) ☎2480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심혈관센터 (CVC) ☎2200	CV	권 준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권성우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시술		
		김대혁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박상돈	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백용수	부정맥 심방세동 서맥 빈맥 전극도자절제술		
		신성희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우성일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이기정	관동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장지훈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폐동맥고혈압		
		최성환	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중재시술		
	PD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대표전화 1600 - 8114 (전국)
종합검진센터 (032) 890 - 3331

외래진료예약 (032) 890 - 2000
암통합지원센터 (032) 890 - 3600

가정간호사업실 (032) 890 - 3590
진료협력센터 (032) 890 - 3302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안과 ☎2400		강성모	성형안과, 사시
		김나래	녹내장, 백내장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이동현	망막, 유리체
		정소연	망막, 유리체
		정지원	백내장, 각막, 안구건조증, 렌즈삽입술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안과레이저		EYAL	레이저클리닉
알레르기내과 ☎2217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영상의학과 ☎2740-3		배민선	중재적 영상의학
		이정민	중재적 영상의학
		조순구	중재적 영상의학
외과 ☎2250		강지희	혈관이식외과
		김경덕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김경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김성훈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박신영	유방외과, 유방질환,유방암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이진욱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임성묵	유방외과, 유방질환, 유방암
		조준호	대장항문외과
		정태영	혈관이식외과
		최선근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최문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최윤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최윤석	소화기외과, 위
		허윤석	소화기외과, 위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BTC) ☎2560-1	외과 GSBT	박신영	유방외과, 유방질환, 유방암
		김성훈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이진욱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임성묵	유방외과, 유방질환, 유방암
		이비인후과 (ENBT)	김지원
	정신건강의학과(PYBT)	최정석	갑상선암
이비인후과 ☎2420-1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김규성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김성열	피타, 편도수술, 소아이비인후과,갑상선 및 두경부, 부갑상선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김지원	피타 편도수술(무통 편도수술),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김현지	유전성난청, 이식형보청기, 인공와우, 중이염, 이명
		박만준	알레르기비염,비중격질환, 축농증,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비염, 코성형, 코피
		주수현	알레르기비염, 비중격질환, 축농증,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비염, 코성형, 코피
		최정석	타액선 내시경술,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 질환, 알레르기 비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비중격질환, 부비동염, 피타 편도수술 (무통 편도수술)
임상약리학과 ☎1167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조상현	임상약리/약동분석
재활의학과 ☎2480-1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오십견), 말초신경병변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 자살예방
		맹세리	일반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정신장애
		이정선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 언어
정형외과 ☎2380		강준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고관절 치환술,관절염,종양,골다공증
		고상현	어깨관절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김영구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류동진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문경호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배기철	슬관절
		이동주	상지, 수부, 종양, 관절염
		전윤상	어깨관절 (관절경, 인공관절 치환술,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어깨 탈구 및 스포츠 손상), 주관절, 슬관절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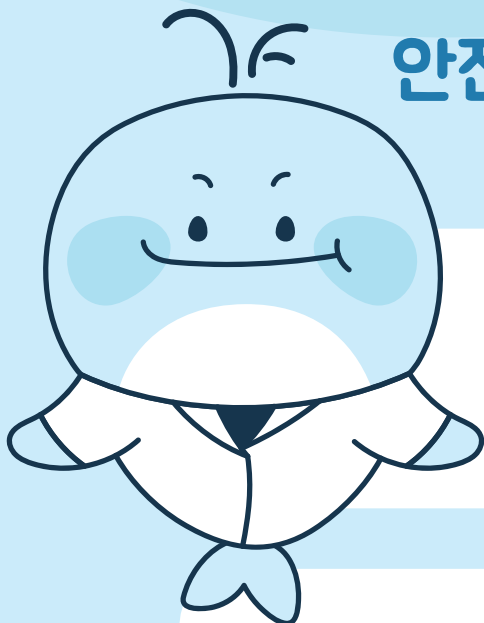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직업환경의학학과 ☎2861		김환철	뇌, 심혈관질환 평가 및 관리,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문진영	직업환경의학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임종한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압제
척추센터 ☎2619	정형외과(OSSC)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신경외과 (NSSC)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윤 홍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재활의학과 (RMSC)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치과 ☎2470		김미경	교정과
		김소현	통합 진료과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조현영	구강악안면외과
		최진호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클리닉
통증센터 ☎3921		김나은	통증치료
		김병건	통증치료
폐암센터 ☎3890	호흡기내과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만성폐질환
		류정선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임준혁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흉부외과	김영삼	폐종양
	윤용한	폐종양	
피부과 ☎2230		변지원	여드름, 피부노화,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과전반적인질환
		신정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알러지, 백반증, 기타자가면역피부질환, 여드름, 홍조
		신현태	유전성피부질환, 소아피부질환, 항암제피부부작용, 탈모, 일반피부질환
		최광성	모발, 모발이식, 조갑질환
핵의학과 ☎3160		이민경	동위원소치료
		현인영	동위원소치료
혈관외과 ☎2166, 2166	외과(GSVC)	강지희	혈관이식외과
		정태영	혈관이식외과
	흉부외과 (CSVC)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 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백완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혈액종양내과 ☎2199		김진철	혈액학, 조혈모세포이식, 종양학
		박지선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이문희	암 진단, 항암 치료, 유방암, 위암, 대장암, 여성암(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임주한	항암 화학요법, 종양내과, 소화기암(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육종, 유방암, 기타 고형암의 항암화학요법, 완화의료
		조진현	혈액학, 조혈모세포이식, 종양학, 완화의료
		하혜림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호흡기내과 ☎216, 2217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남해성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폐결절
		류정선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박미화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의학
		차형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임준혁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의학
흉부외과 ☎2280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김영삼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백완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윤용한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권영세	소아신경, 뇌전증
희귀유전 질환센터 (GC)	소아청소년과	김수진	류코다당증, 누난증후군, 프라디-윌리증후군, 엔젤만증후군, 터너증후군, 유전성대사질환,
		이주영	신생아, 미숙아, 발달
		이지은	소아내분비, 유전 및 유전성 대사질환
	신경과(NRNM)	권순옥	말초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권 준	심부전, 심근병증, 판막질환, 유전성 심장질환
	심장내과	신성희	심부전, 심근병증, 판막질환, 유전성 심장질환
		백용수	부정맥, 부정맥 전극도자절제술, 심장제동기화 치료, 유전성 부정맥 희귀질환, 급사
	안과	정지원	백내장, 각막, 안구건조증, 렌즈삽입술
	이비인후과	김현지	어지럼, 난청, 중이염, 이명, 보청기, 편도
	재활의학과	정한영	발달지연, 근육병, 뇌성마비
	정신건강의학과	맹세리	일반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정형외과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문연숙	세포유전
	진단검사의학과	장우리	진단유전
	피부과	신현태	유전성피부질환, 소아피부질환, 항암제피부부작용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소화기내과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운동성 장질환
		신종범	대장암, 위암, 위·대장 질환, 소장질환, 염증성 장질환
		차보람	위암, 대장암, 위장관 운동성 질환, 소화관암
	외과과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최윤석	위장관 외과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방사선종양학과	하혜림	위암, 식도암, 기타 고형암
대장암	소화기내과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신종범	대장암, 위암, 위·대장 질환, 염증성 장질환
		차보람	위암, 대장암, 위장관 운동성 질환
	외과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최문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대장항문질환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간암	소화기내과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간암, 간질환, 만성 B형, C형 간염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안승익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외과	이건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신우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김경덕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임주한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뇨기암, 뇌척추종양
췌장암	소화기내과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증, 치료내시경
		정 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질환
		박진석	췌장암, 담도, 췌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외과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김경덕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폐암	호흡기내과	하혜림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박지선	담도암, 간암
		김우철	췌장암, 소화기암
		김준미	소화기병리
	흉부외과	이홍렬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곽승민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혈액종양내과	류정선	폐암, 폐결절, 표적치료, 폐암 조기검진, 늑막염, 면역치료
		남해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맞춤치료,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혈액암	소화기내과	임준혁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암 조기검진
		윤용한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진철	폐암, 흉선암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혈액종양내과	김루시아	폐병리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갑상선암	소화기내과	김진철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수종양
		최석진	혈액림프관내계 병리
		홍성빈	갑상선암, 부신종양, 갈색세포종
	방사선종양학과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혈액종양내과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소현	갑상선, 내분비, 당뇨
		서다혜	갑상선,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
		조용인	갑상선, 내분비질환, 부신
		이진욱	갑상선 내분비 질환, 로봇수술, 구강 내시경수술
	이비인후과	최정석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하혜림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유방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핵의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박신영	유방암, 유방질환
	성형외과	임성목	유방암, 유방질환
		기세휘	유방재건, 유방성형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하혜림	유방암, 부인암
부인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산부인과	황성욱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이방형	부인종양학(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이외 산부인과 종양)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유방암
		하혜림	자궁암, 난소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최석진	산부인과병리
비뇨기암	비뇨의학과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신이식, 내비뇨기과학, 혈뇨
		정두용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혈뇨
		김종원	종양, 혈뇨, 결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임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혈액종양내과	하혜림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김현정	전립선,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방사선종양학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한지영	비뇨기병리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최정석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성형외과	기세휘	조직재건
		임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후두암, 위암, 식도암
	혈액종양내과	하혜림	구강암, 편도 및 인후두암, 위암, 식도암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피부암	피부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건강의학과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재활의학과	김명옥	암재활 - 림프부종
		김명옥	암재활 - 림프부종
	피부과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피부레이저 클리닉
뇌·척추종양	신경외과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피부레이저 클리닉
		신현태	소아 피부질환(혈관종 포함), 항암제 피부 부작용, 희귀 유전질환, 탈모
		기세휘	피부암
		임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방사선종양학과	하혜림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방사선종양학과	김루시아	병리학
		김루시아	병리학
근골격종양	정형외과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병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김경민	뇌종양, 뇌하수체, 두개기저부 종양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희귀암
		하혜림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뇌종양, 뇌전이상, 척수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이정심	뇌종양, 뇌전이상, 척수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INHA Friends

'인하대병원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웨인

'안전한 바다!
물 뽀뽀!'

책임감 충만한 인하대병원 의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물을 뽀뽀하며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믿음직스럽고 꼼꼼한 인하대병원의 간호사.
특유의 따뜻한 미소와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밤낮없이 지킨다.

이나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



그랜팡

'지팡이가 닳도록! 팡팡!'

오지라퍼에 말 많은 할머니 환자.

누구보다 속이 깊고 따뜻하다.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지팡이가 닳도록 빠르게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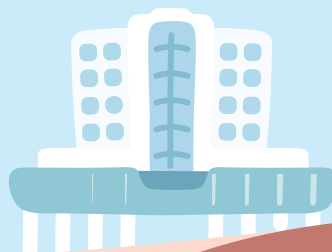
말썹꾸러기 빼돌이 어린이 환자.
인하대병원 대표 말썹쟁이지만 촌데레라
이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도와줄 것이 없는지 묻곤 한다.

오스타

'츰츰! 바다의 별!'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



안전에 Think **Safety**
가치를 더하다 Build **Value⁺**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